



한국 육상 사상 트랙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진출하는 여자 육상 단거리 유망주 정혜림양.

여자육상 사상 첫 준결승 진출

정혜림, 세계주니어육상 100m 허들 역주

남자부 유경민 400m 허들서 준결승 올라

여자 단거리 유망주 정혜림(19·안산시청)이 한국 여자 육상 사상 트랙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진출,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정혜림은 17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스포츠펠트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 1라운드에서 14초08에 결승선을 끊어 24명이 겨루는 준결승에 올랐다.

남자 400m 허들의 유경민(19·한국체대)도 53초34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유경민은 1992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이진일(대표팀 코치)이 남자 800m에서 결승에 진출한 이후 남자 트랙에서 14년 만에 처음 준결승에 올랐다.

여자 장거리의 김경애(18.경기체고)는 50m37을 먼저 결승에 진출했다. 53m15의 개인 최고기록을 지닌 김경애는 19일 결승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최승수 前 복싱챔피언 내달 16일 K-1 데뷔전

세계복싱협회(WBA) 전 슈퍼페더급 챔피언에서 입식 타격기로 전환한 최승수(34)가 9월16일 중국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K-1 파이팅 네트워크 칸 2006 서울대회' 공식 데뷔전을 앞두고 멋진 데뷔전을 치

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경기의인 '슈퍼파이팅'에 출전하는 최승수는 17일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뷔전을 치르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바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을 두고 있는 상대는 아직 없지만 어느 선수가 맞더라도 팬들이 좋은 경기를 보여 주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이저 리그 소식

캐디-프로골퍼

‘변함없는 우정’

찬호, 본즈에 완패

개인통산 724호 홈런 허용  
4와1/3이닝 3실점 8승 실패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배리 본즈에게 홈런을 맞았고 시즌 8승도 무산됐다.

박찬호는 1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캣과파크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홈런 2방 등 안타 5개, 볼넷 3개를 내주고 4-3으로 앞선 5회 1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박찬호는 볼펜투수가 볼을 꺼 실점 3에 머물렀고 시즌 8승(7패)도 바라봤으나 샌디에이고가 8회에 실점하면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박찬호는 1회 초 상대 타선을 공 9개 짜리 삼자범퇴로 요리했고 샌디에이고는 1회 말에 브라이언 자일스가 솔로홈런을 날려 시국이 산뜻했다.

박찬호는 2회 선두타자 배리 본즈에게 풀카운트 접전 끝에 우월홈런(개인통산 724호)을 맞고 말았다. 샌디에이고는 2회 말 조쉬 바빌드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 2-1로 달아나 부담을 덜었으나 박찬호는 3회 초 선두타자 토드 그리에게 또 홈런을 내줬다.



박찬호의 투구수는 85개였고 스트라이크는 44개였다. 시즌 방어율은 종전 4.66에서 4.68로 조금 올랐다. 본즈와 이

한 번의 실수로 10년 동안이나 징역을 살았던 캐디와 프로골퍼 마크 켈케베카(미국)의 우정이 알려져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17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챔피언십에 출전한 켈케베카의 골프백을 메고 있는 에릭 라슨은 1989년 브리티시오픈과 1995년 벨사우스 클래식에서 켈케베카가 우승할 때 기쁨을 함께 누렸던, 잘 나가는 캐디였다.

하지만 라슨은 1995년 논 랫폼 때문에 코카인을 운반하다 체포돼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년 동안은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미 프로골퍼 켈케베카  
11년형 복역한 옛 캐디  
PGA챔피언십서 재고용

"실수였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누워온 라슨은 감옥에서도 공부를 계속해 학사 학위를 받았고 동료 죄수들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면서 언젠가 출소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켈케베카의 도움도 컸다. 켈케베카는 감옥에 있는 라슨을 잊지 않고 면회를 하면서 출소하면 캐디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골퍼 켄 그린과 캐디 마이크 히스도 편지를 보내며 격려했다.

마침내 2005년 12월 라슨은 가석방됐고 켈케베카는 캐디로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지켰다. 라슨은 올 시즌 혼다클래식과 웨스턴오픈, US뱅크챔피언십에 켈케베카와 함께 출전했고 PGA챔피언십에서도 매디나골프장을 돌며 어뵈었던 과거를 지워가고 있다.

18일(금) ▲PGA 투어 PGA 챔피언십 1R(06: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텍사스-디트로이트)(07:55·xports) ▲월드그랑프리 배구대회(브라질-대한민국)(14:00·KBS SKY SPORTS) ▲볼펜투구 코야야구(15:3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추니치)(17:50·SBS스포츠) ▲프로야구(KIA-롯데)(18:00·KBS SKY SPORTS), <두산-삼성>(18:30·MBC ESPN) 19일(토) ▲PGA 챔피언십 2R(02:45·KBC)

날 맞대결 전적은 홈런 1개와 외야 플라이 2개이고 통산 전적은 볼넷 15개를 포함해 47타수 13피안타(8홈런), 7탈삼진.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5-5로 균형을 이루던 연장 13회초 2사 1,2루에서 엘라이자 알폰소의 1타점 좌전안타와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페드로 캘리스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뽑아 7-5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하루 쉬고 또 안타

추신수(24)가 왼손 투수에게서 안타를 치며 전날 끊어진 안타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외야수 추신수는 17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허버트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5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추신수는 네 번째 타석인 8회 2사 1루에서 왼손 볼펜투수 데니스 레이에스를 맞아 좌전 안타를 때리고 출루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후속 타자 라이언 가코가 삼진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이전까지 득점 기회에서 2차례 방망이를 잡았지만 안타를 치지 못했다. 2회초 무사 2루에서 1루 땅볼, 4회 1사 1,2루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6회에도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1루 땅볼에 그쳤다. 올 시즌 왼손 투수 상대로 10타수 3안타를 올렸으며 이날 4타수 1안타로 타율 0.312를 기록했다. 클리블랜드는 2-2 동점인 8회말 홈런 포함 4안타로 5실점하며 무너져 2-7로 졌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olden Gate City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like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매일부동산',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정원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and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 Includes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